



‘호남정치 1번지’ 광주, 정치가 사라졌다

시장·국회의원 ‘감정싸움’ 시·구의원들은 ‘감투싸움’

내일 市-지역의원 정책協...“갈등 털고 화해 틀세워야”

광주는 ‘호남 정치 1번지’이자 한국 정치 지형에 격변을 가져온 진원지였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으며 지역패권주의에 의해 정치권이 왜곡될 때는 홀로 맞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왔다.

그런 광주가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휘둘러졌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은 뒷전에 둔 채 불쌍사냥개 싸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는 사라졌고 ‘전무 아니면 전부식’의 책임전가와 정치적 흡입 내기, 상대방 무시만이 남무하고 있다. 민주당 일당 독주의 승리감에 도취된 시의원 의원들은 자라다름을 벌이다 반으로 쪼개졌다.

광주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결국 전방위적 고소·고발과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광주는 지금 정치력 부재의 도시다.

때 마침 17일과 18일 광주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털고 화해의 기쁨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광주 지역 의원들과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는 특히 주목된다. 양측인 박광태 시장과 국회의원은

들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출범 이후 변변한 정책협의회 한번 갖지 않았었다. 지지율 낮은 한나라당도 지난 10일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했었다.

18일 정책협의회가 갈등 봉합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더 큰 불화로 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정책협의회 이틀 전인 16일에야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 보내 신경을 자극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정책협의회를 하겠느냐”며 광주시를 비난

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광태 시장의 스타일인 시정을 흔들고 있다며 정책협의회에서 따지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은 양측이 정치력을 발휘, 갈등을 극복하길 주문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자존심 대결 자세를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시장은 여러 통로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엄동연·양형일 의원 등도 화해

기류를 보이고 있다. 물론 박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고소·고발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와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강기정·지병문 의원 등 강경파의 목소리도 크다.

광주 정치권의 갈등은 정당을 달리한다고 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광주의 ‘여당’ 격인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박광태 시장,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 그리고 광주시의원들은 17일 간담회를 갖는다. 박시장과 유위원장은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의원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정치적 다름을 벌였다. 때문에 의장 선거가 끝나 승패가 확연히 드러난 지금은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화합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다.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국회 문화관광위에 들지 못할 정도로 힘 부족에 허덕였고, 선후배 의원 간 서열, 질서도 없이 ‘제 잘나 맞아 산다’는 비판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산강 페그물 수거 전남도 환경정화선 ‘영산강호 전남 911호’(57급·선장 김의중)가 16일 무안군 동탄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어린이들이 수거한 페그물(삼각망)을 크레인으로 옮겨 실고 있다. /무안=워싱턴기자 jrwi@kwangju.co.kr

새 憲裁소장에 전효숙씨 지명

재판관 김희옥·민형기·김종대·목영준·이동홍씨 추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윤영철 소장과의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된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과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을 내정했으며, 여·야는 국회 추천 몫으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동홍 수원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된 전효숙 지명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사상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효숙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李대법원장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근절대책 발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이 신설된다. 또 법관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인사로 위촉된 공직자윤리위가 법관 징계·감찰 권한을 갖게됨에 따라 그동안 내부 비리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법관 처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회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이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수리에 앞서 조사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호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리행위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내달 14일 韓美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12~15일 미국을 실무방문하고, 방미기간인 14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그

리스(3~5일), 루마니아(5~7일), 핀란드(7~9일)를 국빈방문하고, 10~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내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번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7만개 잉크 카트리지 ‘동동’ 남해안 대규모 환경오염 우려

지난 7월 태풍 예우니아로 인해 남해안 일대 바다로 유실됐던 컨테이너에 87만개의 잉크카트리지(사진)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바다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서남해안도서환경센터에 따르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컨테이너 4개에 선적돼 있던 잉크카트리지 87만개중 일부가 조류에 떠밀려 최근 여수에서 고흥에 이르는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천개에서 수십여 개씩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잉크 카트리지 가운데 일부는

심하게 손상돼 잉크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태풍으로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을 지난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182개 가운데 25개는 인양됐으나 나머지 157개는 수거되지 않았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쿨

최수호 김동원